

# ‘일본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 던지는 경고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타마키 타다시 지음

1990년대 초반, 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버블 경제’(Bubble economy)의 붕괴였다. 기업들은 인수·합병되거나 파산했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 사회나 기업, 소비자들은 ‘생존’을 위해 변화해야 했다. 한국경제도 불황의 늪에 빠지며 과거 일본의 전철(前轍)을 따라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출간된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일본을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한다. 저자인 타마키 타다시는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에서 30여 년간 현장을 뒀던 전문기자 출신이다. 이 책은 ▲잃어버린 20년이 던지는 경고 ▲돈의 배반에서 살아남는 법 ▲불황에도 생존하는 비즈니스 방정식 등으로 나눠 한국경제가 ‘미래’를 위해 일본의 ‘과거’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1980년대 일본은 비정상적으로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경제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아 기업이나 개인들은 토지와 빌딩을 사들였다. 하지만 ‘버블 경제’가 붕괴하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졌다. 저자 역시 5400만엔(5억40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3년 후 2800만엔(2억8000만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 장기 불황은 일본의 ‘과거’와 닮아 있다. ‘최종 처분’ 판매를 하고 있는 일본 도쿄 신발가게.

원)으로 반 토막났고 다시 3년 후에 2100만엔(2억1000만원)에 팔아야 했다.

경기가 급속히 식어가자 소비자의 지갑도 굳게 닫혔다. 하지만 저자는 소비 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도 함께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명품 대신 고품질 중저가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유니클로에서 만든 직물 상의는 무려 850만 장이 팔렸고, 편의점에서 파는 아라비카 100엔 커피는 19억 장이 팔렸다.

저자는 한국도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가계부

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들이 골프장 등지에서 접대를 위해 사용한 법인 카드 이용액이 110조2113억원(2014년 기준)에 달한다.

이러한 ‘범인 경제’ 외에 ‘서민경제’도 변해야 한다. 개인 소비에서 카드 결제가 접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20%, 한국은 80%이다. 한국은 화폐가 거의 필요없는 ‘캐시리스(Cashless) 선진국’이지만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면 소비를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양 길에 접어든 필름 대신 신약과 관광판 보호필름 등 신규사업을 개척한 후지필름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생존전략이 한

국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저자는 오는 2018년이면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역시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본에는 산다미와 같은 실패와 고통의 경험, 극복의 노하우가 있다”면서 “한국이 그것을 잘 헤아려서 가능하면 같은 실패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스물빅미디어·1만5000원>/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다르게 진화한 도시, 파리 그리고 서울

메트로폴리스 파리  
메트로폴리스 서울  
최민아 지음

집, 서점, 백화점, 카페, 공원, 영화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공간 중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들이다. 현대 도시, 특히 메트로폴리스로 불리는 세계적인 대도시의 정체성은 유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모습과 공간의 차별성을 고수하며 개성을 드러



내고 있다.

프랑스 파리 건축도시사회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일하는 등 파리와 서울에서 다양한 도시·건축 설계를 진행 해온 토지주택연구원 최민아 연구원이 펴낸 ‘메트로폴리스 파리, 메트로 폴리스 서울’은 서점 등 여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 두 도시를 들여다 본 책이다.

저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지우와 파리에 살고 있는 클로딘이라는 가상의 두 화자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지우는 안국역 스타벅스와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클로딘은 생플라시드 광장의 카페 델마와 서점 지베르 조제프를 찾아 이야기를 전하는 식이다.

그래서 딱딱하고 분석적인 글 대신 도시를 바라보는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물론 ‘연구원’이라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글들도 함께 배치해 균형을 맞췄다.

저자가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두 도시 이야기는 흥미롭다. 파리는 왜 금싸라기 땅에 임대주택을 짓고, 서울의 아파트는 왜 샌드위치 같은 모양인 걸까. 파리에는 왜 서점이 약국보다 많고 서울의 대형 서점은 왜 대부분 지하에 있을까. 파리의 공원은 왜 그네를 타는 데도 돈을 내야하고 서울의 공원은 왜 어딜 가나 운동기구가 있을까 등등.

일상과 만나는 도시 공간을 재조명하고 형성 과정과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공간이 얼마나 복합적인 성격과 매력을 발산하는지 보여주었고 싶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책을 읽다보면 도시의 흥미로운 구석을 발견할 수 있다. <호형출판·1만5000원>/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만주야 상점 옆 예쁜 집=수필가 기시모토 요코의 첫 소설집. 마흔넷의 미혼 여성이 도쿄의 ‘만주야’라는 상점 옆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된다. 늘 다니는 김복인데도 우겨진 나뭇가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면서, 큰 어려움을 없이 살던 이 사미의 삶은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드디어 지키고 싶을 것을 찾은 이사미는 할머니의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부동산업자와 밀당을 벌이며 할머니의 까칠한 딸을 설득한다. <재송출판·1만2000원>

▲긴 봄날의 소품=일본 근대 문학의 출발이자 천년의 문학기라는 평가를 받는 나쓰메 소세키의 사후 100년을 맞아 그의 작품 세계를 되짚어볼 수 있는 중편소설과 수필을 엮은 책이 출간됐다. 나쓰메 소세키는 10여 년의 짧은 작가 생활을 하며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책에는 중편소설 ‘이백십일’, ‘열흘 밤의 꿈’과 수필 ‘긴 봄날의 소품’, ‘유리문 안에서’가 수록돼 있다. <현암사·1만1000원>

▲사회계약론=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의 원천을 국민에게서 찾는다. 국민주권 사상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18세기 전후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 주자가 장자크 루소다. 그가 쓴 책 ‘사회계약론’은 좋은 정치 체도란 어떤 것인지,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하는지를 고심하며 써 내려간 책이다. <생각정거장·1만2000원>

▲행복의 형이상학=현대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알랭 바디우가 펼치



는 혁신적 행복론. 바디우는 “행복이란 만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상적 만족을 주는 자잘한 보상들, 훌륭한 직업, 적당한 보수, 무쇠 같은 건강, 명량한 부부 관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휴가, 유쾌한 친구들, 잘 갖춰진 집, 쾌적한 자동차 등으로 이어지는 평온한 삶의 목록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얘기다. <민음사·1만2000원>

▲렌즈와 컴퍼스=알파고와 불려온 위기로부터 인간 사유의 본질을 재규명하는 철학에세이. 저자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세운 인공지능의 대척점에서 인간 사유의 본질적 특성을 발견과 구현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은 보이는 것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데에 근거한다. <로그폴리스·1만4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앵그리 병두의 기동한 크리스마스=약속을 지키지 않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복수를 선언한 꽃할매 이야기. 제멋대로 ‘작한 어린이’를 정하기 일췌인 어른들을 뜨겁게 하고, 어린이들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 준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법처럼 어린이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사계절·7800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면=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솔직담백하게 전하는 허은미 작가가 산타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할아버지가 산타여서 한없이 신난 아이의 반짝이는 눈망울과 그런 아이 옆에서 전나무 무늬 바지를 입고 산물을 정리하는 산타의 일상 모습이 유머러스하게 전해진다. <풀빛·1만2000원>

▲엄마 씨앗 아빠 씨앗=아기가 엄마 배 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나는 과정, 엄마



씨앗과 아빠 씨앗이 만나는 과정까지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책은 인공 수정과 제왕 절개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담아 아이들이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파랑새·1만2000원>

▲해아와 용의 비늘=우리의 신화와 전설 속 용을 바탕으로 지어낸 작품으로, 해양 판타지 모험기이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 미르와 모험을 떠났던 해아는 미르와 바다속 생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엄마뿐 아니라 다른 해녀들, 그리고 모든 바다의 생물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나간다. <바람의아이들·1만1000원>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최적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악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사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장성군 동하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등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사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사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양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는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향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